

# VOGUE

KOREA

보그 한국판  
J A N  
2 0 1 8  
동권 258 호  
7,500원

*1 dear  
bella*

현재적 아름다움에 대한 <보그>의 경탄



뉴욕의 아이코닉한 패션 스토어를 디자인한 라파엘 데 카르데나스(Rafael de Cárdenas)가 서울을 찾았다. 자신의 최근 작품인 겐조 청담 스토어의 파사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행보. <보그>가 그와 패션과 건축을 주제로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. **NHJ**

Q 당신이 패션 스토어를 디자인할 때, 경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시하는가? **A** 우선 물건을 파는 공간인 만큼 물건이 놓이는 방식, 즉 비주얼 머천다이징이 가장 중요하다. 시즌별로 새로운 물건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가가 관건이다.

Q 당신이 생각하는 파사드의 의미는 무엇인가? **A** 이제까지의 겐조 매장은 파사드가 도드라지지 않았다. 빌딩의 한 부분에 속하는 식이었는데, 이번 청담 매장은 겐조로 드러나기에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다. 우선 파사드가 외부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보이길 원했다. 지나가는 사람도 만지고 싶은 정난감 같은 느낌을 원했고, 그 결과 실패를 형상화한 콘 모양의 3D 파사드가 탄생했다. 처음에는 메탈 소재를 제안했으나 좀더 안전한 ABS 플라스틱 소재로 최종 제작했다. 겐조는 돈이 많은 걸 보여주는 브랜드가 아니라 문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브랜드다. 저렴한 재질을 연상시키는 플라스틱 파사드는 그래서 어울린다고 생각했다.

Q 당신이 평소 겐조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는 어땠나? **A** 한마디로 '고고고(Go Go Go)'다.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한다. 누구를 카피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.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마인드가 잘 조화를 이룬 브랜드다.

Q 언젠가 꼭 건축 혹은 리노베이션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 대상이 있을까? **A** 쇼핑몰. 최근 미국에서 쇼핑몰은 죽어가는 존재다. 모두를 위한 모든 것이 있는 쇼핑몰은 인터넷 세대로 넘어오면서 그 권위를 상실했다.

Q 1990년대 캠프 클라인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일한 경력이 있다. 지금 다시 90년대 열풍이 불고 있는데, 90년대 패션이 흥룡했던 점을 한 가지 꼽는다면 무엇일까? **A** 스트리트웨어가 하이패션의 영역에 진입했다는 것.

Q 최근에 산 패션 아이템은? **A** 방금 서울에서 산 내 체형에 맞는 작은 사이즈의 옷. 또한 80~90년대 베르사체 빈티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베이와 LA 빈티지 숍을 뒤져서 구입한다.

Q 최근 90년대 슈퍼모델들이 등장한 베르사체 쇼에 대한 감상은? **A** 양가적인 감정이었다.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점에서는 좋았다. 하지만 한편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면 미래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.

Q 패션과 건축의 상관관계를 말하자면? **A** 둘 다 당신을 드러낸다는 것. 역사적으로 건축은 옷 입는 방식을 제안했다. 어떤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패션이 달라지니까.

Q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흥미를 끄는 건 무엇인가? **A** 웃긴 밈(Meme)이다. 밈은 현재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를 재밌는 이미지와 글(짤방)로 풀어낸다. <보그>에 이런 계정을 추천해도 될까? 인스타그램에 조앤 더 스캐머(Joanne the Scammer)를 찾아보길.

life  
architecturally